

# 내 인생의 변곡점이 된 아프리카 해외봉사

정 일 국 ●●●

## 내 인생의 특별한 경험

내 인생 후반전의 방향을 바꾸도록 해 준 특별한 경험이 있다. 타국, 그것도 보통 타국이 아니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데서 오는 두려움이 가득한 아프리카에서 일반여행이 아니라 2년 간 살면서 배운 살아있는 체험이다.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은퇴 후 인생 이모작’이란 새로운 삶의 순환과정이 만들어졌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새롭게 인생 2모작 여행을 준비해야 한다.

액티브시니어인 나는 평소 여행을 좋아해 ‘인생은 여행과 같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다. 아직도 배낭을 메고, 자유여행을 떠나지만, 곳곳에서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상황 속에서 스릴을 느끼며, 그때마다 판단하고 결정해야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40여 년 가까이 교육자의 길을 걷고 정년퇴직을 했다. 멀티시니어로 살아남기 위한 도전의 일환으로 두 달간 남미 일주 배낭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데도 어딘가 허전했다. 막연히 꿈꿔왔던 아프리카를 조금이라도 맛보고 싶었다. 일정을 바꿔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닷새간 머물렀다. 세계문화유산 ‘테이블 마운틴’과 희망봉 등대에 올라 넓디넓은 바다를 바라보았다.

‘남은 인생을 어떻게 하면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삶으로 채울 수 있을까?’

퇴직을 한지 10개월이 지난 시점, KOICA(한국국제협력단) 해외봉사단 모집에 기다렸던 과학교육단원 모집공고가 나왔다. 지원할 수 있는 곳은 남미 페루와 아프리카 탄자니아 두 곳 뿐이었다.

마침 짧은 아프리카 여행을 마친 참이어서 아프리카에 대한 호기심이 발동했다. 아름다운 경치와 다양한 생태계가 존재하는 동물의 왕국 '세렝게티'와 '노예무역'의 슬픈 역사가 공존하는 나라 탄자니아!

코이카! 그것은 새로운 유혹이자 도전이었다.

고민 끝에 새로운 이모작 인생의 출발선에 서는 심정으로 '코이카 해외봉사단'모집에 지원서를 냈다.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재검(再檢)대상이자 되었다. 재검까지 마친 후 조바심 끝에 드디어 합격통지를 받았다. 기쁨과 두려움이 교차했지만 인생 이모작을 열어줄 탄자니아로 가고 싶은 열정이 두려움을 이기게 했다.

###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과학교육단원으로 가다

5주간의 국내교육 훈련을 마치고 마침내 코이카 단원으로서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과학교육단원으로 파견되어, 퇴직 후 다시 아프리카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었다.

막상 가서 보니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매우 어려운 교육 여건이었다. 교실환경은 여러분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상태로 붉은 흙이 쌓여있었고, 학생들은 공부 할 교과서마저 없었다. 교과서 없이 어떻게 어렵다는 과학을 가르치나? 게다가 고등학교에 진학하려면 국가고사를 통과해야 한다. 국가고사에는 과학실험실습능력도 평가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소홀히 할 수가 없었다. 막막했다.

다행히 대한민국 코이카의 도움으로 활동물품을 구입해 교재를 준비하고, 과학실험에 필요한 기자재를 구입해 교육환경개선에 일조했다. 열악한 교육환경에서 좌절과 후회도 반복했지만 참고 이겨내며, '다시 찾은 선생님'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힘차게 활동해 커다란 보람을 느꼈다.

탄자니아에서의 생활은 '인생은 여행이며 고난의 연속'이라는 말처럼 녹녹치만은 않은 매순간 긴장의 연속이었다.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생활습관과 뿔레뿔레(천천히)라는 느낌의 문화를 경험하면서 초조해하기도 했다. 때로는 분노와 좌절감을 맛보기도 했다.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도 많아 고생도 많았다. 때로는 낙심과 후회도 했다

여행에서 눈 뜨고 코 베이던 도난 사건과 집안으로 강도가 침입도 있었고 도둑맞던 일도 있었다. 급기야 아프리카 풍토병에 걸려 죽을 뻔해 갑자기 중도귀국을 해 병원에 다니며 체력을 보강해야했다. 하마터면 중도에 포기할 뻔했다.

해외봉사를 통해 현지어 습득과 함께 외국문화를 배우며 여행을 통해 견문을 넓힐 수 있었다. 아프리카에서 활동했던 2년 동안에 육십 평생 겪어보지 못했던 어려움을 당했고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인생에서 고통 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No Pain, No Gain)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 번 체험했다.

### 해발 600미터의 킬리만자로에 오르다

해외봉사활동은 힘든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현지학교 교사였기에 방학 중 여행을 통해 새로운 아프리카 문화체험을 할 수 있었다. 아프리카 탄자니아에만도 125개의 부족들이 살고 있으며 각각 그들만의 다른 언어를 갖고 산다. 마사이족들이 쓰는 말은 전혀 다르다. 그러니 같은 나라이긴 해도 언어가 달라 소통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현장도 체험하면서, 한 가지 언어로 소통하는 코레아를 소개했다. 또 육십 대 중반의 코이가 남자단원들과 해발 6000미터에 이르는 킬리만자로 산에 도전하면서 대한민국 중년들의 패기를 보였다.

탄자니아에는 노예들을 싣고 떠났던 항구가 여러 곳에 남아있다. 그 중 아프리카 사람들을 잡아다 아랍이나 영국, 미국 등에 팔아넘긴 노예무역이 성행했던 잔지바르 노예무역의 눈물의 현장도 가보았다.

광활한 초원에서 이루어진 동물의 왕국 세렝게티 사파리도 기억에 남는다. 쉽게 가보기 어려운 아프리카여행을 통해서 아름다운 풍경과 그들의 삶을 보고 느끼고 즐기기도 했다.

인생의 여러 가지 맛을 스스로 체험함으로써, 해외봉사활동 다녀오기 이전보다 훨씬 드라마틱한 많은 경험과 이야깃거리를 갖게 되었다. 더 중요한 것은 현지인들의 따뜻한 도움으로 닦친 어려움과 두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자신감과 인내심을 얻었다.

새로운 세계에 과감히 도전장을 내밀었던 아프리카 해외봉사의 특별한 경험은 보람으로서 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을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내는 변곡점이 되었다. 그때 얻은 경험과 견문을 통해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뜨게 되었고, 그것은 나의 은퇴 후 삶을 새로운 세계인 '프로 강사의 길'로 들어서게 해주는 원동력이 되었다. 현재 백당교육 연구원과 'KPO 명강사협회' 소속 전문 강사로서 활동하고 있다.

후반전 인생 초반에 아프리카에서 봉사 활동했던 730일간은 내 일생에서 가장 큰 도전이었고, 대한민국 민간외교관으로서의 보람과 가치 있는 삶을 살아본 특별한 경험으로 내 삶을 바꾼 살아있는 배움이었다.

# 인생 후반부의 좋은 놀이터

김 순 의 ●●●

## 어떻게 살아 내지?

수원에 와서 네 번의 봄을 맞았다. 평생 살던 곳을 떠나 낯선 곳에 등지를 틀기가 쉽지 않았다. 겨울이라 체감온도가 더 춥게 느껴졌다. 대문만 나서면 이웃들과 얼굴을 대하던 주택에서 살다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니 도무지 정 붙일 곳이 없었다. 대인관계 능력이나 적응력이 뛰어나다고 자신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모양이다. ‘어떻게 살아 내지?’ 자꾸 한숨이 터져 나왔다.

나무도 옮겨 심으면 몸살을 앓는다는데 하물며 사람이라. 내 몸 움직여 뿌리를 내리기로 작정하고 동네 투어부터 시작했다. 집을 구하러 돌아다니다 평생 학습관이 있는 것을 보고 마음이 끌렸던 일이 생각나 사무실을 찾았다가 그날로 내 한숨이 푹 그쳤다. 신중년을 위한 프로그램이 줄을 서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다양한 강의와 주제별 토론폰도 열리고 요일마다 독서 모임이 있어 취향에 따라 참여할 수 있었다.

당장 뒷날 열리는 공주(공부하는 주부) 독서모임에 참석했다. 매주 한 권씩 책을 읽어야하니 정신없이 바빠졌다. 학습관 바로 아래 도서관이 있어 책 빌리기도 좋았다. 혼자서는 읽어내기 어려웠던 고전도 너끈히 읽게 되고, 독후감을 통해 서로 다른 느낌을 나누는 재미가 쏠쏠했다. 안나 카레니나, 파우스트, 논어,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을 읽고는 평생의 숙제를 마친 듯 후련했고, 그리스인 조르바를 읽으며 자유로운 영혼을 꿈꾸기도 했다. 그림과 음악에 대한 책을 통해 세계의 거장들을 만나고, 정의란 무엇인가, 팩트 폴니스 같은 이 시대 지성들의 얘기도 들었다. 그동안 읽었던 책 목록을 볼 때면 뿌듯하기만 하다. 책을 대본으로 만들어진 영화도 함께 보며 친목도 쌓아갔다.

화요일엔 글쓰기 모임이 있어서 일주일에 한 편씩 글을 쓰느라 밤잠을 설쳤다. 같은 제목으로 다양한 얘기가 나오는 것이 놀라웠다. 지도 교수 없이도 서로 첨삭을 해서 돌려보다 보니 글쓰기 실력도 쑥쑥 늘었다. 공모전 소식을 공유하고 도전해 수상을 하고, 홍재 백일장과 수원 문협에서도 신인상을 받았다.

## 뭐라도 학교와 어디든여행단

목요일엔 비폭력 대화를 상징하는 기대(기린 대화)로 모였다. 기린은 동물 중에서 가장 큰 키와 심장을 갖고 있다고 한다. 키가 커서 상대를 훤히 볼 수 있으니 이해하는 마음도 크고, 심장이 커서 넉넉하게 품을 수 있단다. 칼에 찔린 자국은 아물지만, 말에 찔린 상처는 치명적인 독이 되어 평생 간다고 한다. 살면서 말 때문에 상처 받았던 적이 얼마나 많은가. 가슴 한쪽에 밀봉해 두었던 일들을 꺼내 풀어놓다보면 매번 눈물바다가 되었다. 공감하고 다독이며 위로하다보니 봄 햇살에 눈 녹듯 치유가 되었다. 나 또한 무의식중에 남을 아프게 한 적은 얼마나 많았을까를 생각하며 내 언어생활을 되돌아보기도 했다. “말의 품격”같은 책을 읽기도 하고, 그래도 잘 안되면 강사를 초빙하기도 했다.

또 뭐라도 배우고 뭐라도 나누고 뭐라도 즐기고 뭐라도 하자는 “뭐라도 학교” 인생수업에 입학원서를 냈다. 비슷한 또래라는 연결고리가 있어 금방 친해졌다. 뭐라도 학교를 수료하고 나니 또 다른 동아리 모임이 줄줄이 만들어졌다. 가고 싶은 곳을 정해 함께 다니는 “어디든 여행단”을 통해 수원 팔색길을 걷다 코로나로 중단 되었다.

강강 치마를 입고 박자에 맞춰 리듬을 타는 “포크댄스”를 배워 정조 능행차 행사에 출연도 하고, 간식을 준비해 가까운 노인 복지관에서 어르신들과 손을 맞잡고 춤을 췄다. 처음엔 뒤로 빠던 어르신들도 이런 춤은 평생에 처음이라며 즐거워하셨다.

회원들이 직접 주제를 정해 진행하는 방송 모임, “팟캐스트”는 코로나 기간에도 비대면으로 계속했다. 한입담하는 내게 딱 맞는 동아리다. 젊은 날 내 별명은 독일지퍼였다. 한번 닫히면 절대 입을 열지 않는다고 그렇게 불렸는데, 말에도 총량의 법칙이 작용하는지 요즘은 젊은 날 못했던 말까지 다 하느라 고장 난 지퍼가 되었다. 처음엔 마이크 다루는 일이 겁이 났는데 공대출신의 엔지니어가

있으니 우리는 입 맞춰 수다만 떨면 된다. 기계치인 내가, 더구나 이 나이에 어떻게 방송 만드는 일을 경험해 보겠는가. 서울 방송국 견학도 가고, 잘 나가는 팟캐스트 모임을 찾아 멀리 이동할 때는 그 자체로 소풍이 되었다.

토요일엔 학습관 영상 강의실에서 영화 수다로 모였다. 보고 싶은 영화를 신청하면 미리 준비해 주셨다. 옛 영화를 보며 추억에 빠지기도 하고, 시사성 있는 영화를 보고 나서는 긴 토론을 하기도 했다. 영화에 조예가 깊은 회원이 들려준 정보는 그대로 한편의 강의였다.

### 머리를 맞대고 밥을 먹는다는 것

모임이 끝나면 주로 우리 집에 와서 점심을 먹었다. 하찮은 음식도 맛있게 먹어주는 것이 고마워서 자주 하다 보니 밥 잘해주는 언니로 소문이 났다. 밥상에 둘러앉아 머리를 맞대고 밥을 먹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는 광고 카피가 있었다. 열심히 일했으니 쉴 자격 있다는 것이다. 전후에 태어난 우리는 샌드위치 세대다. 젊은 날 부모 모시고 아이들 키우며 종종걸음 치며 살았으니 놀 자격 충분하지 않은가? 잘 쉬고 잘 노는 것도 경쟁력인 시대가 되었다. 아름다운 젊음은 우연한 현상이지만 아름다운 노년은 예술작품이라고 한다. 그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명석을 깔아준 학습관이 있으니 얼마나 고마운가. 이웃들에게 선한 오지랖을 퍼며 건강하고 아름답게 쫄대가 아닌 꽃대로 늙어가고 싶다.

인생 후반기에 이보다 좋은 놀이터가 또 있을까? 백수가 과로사 한다더니 요일 별로 나다니느라고 늘 바쁘다. 코로나19로 긴 방학을 했었지만 이제 곧 개학할 날이 머지않은 것 같다. 타향도 정이 들면 고향이라는 노랫말처럼 어디서든 심겨진 곳에서 꽃피우며 사는 것이 중요하리라. 요즘은 방화수 류정에서 해를 맞고, 장안문 너머로 지는 해를 보며 세계문화유산 화성이 있는 수원에서 힐링 라이프를 즐기고 있다.

# 취약성을 드러내는 용기-연결의 결정적 단계

김지혜 ●●●

## 외국인과의 온라인 워크숍

온라인의 세계는 물리적인 국경과 거리두기의 장벽을 무너뜨린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많은 사람들을 강제로 자발적이든 온라인의 세계로 이끌었다.  
우연히 영국과 미국인만 가득한 온라인 워크숍에 참여하게 되었다.

공감을 통한 대화 모임이었고 나는 영어를 좀 한다는 생각에 용기 내 참가했다.  
처음 참여한 날 다른 참여자를 보며 바로 알 수 있었다. '내가 잘못 왔구나.'  
사람들은 눈에 띄는 단 한 명의 아시아인을 환영한다고 했다.  
마치 그들 사이에서 유일한 이주민이 된 기분이었다.

전체 프로세스를 설명하고 서로 인사를 나누고 우리는 바로 4명 ~5명으로 구성된 소그룹 방으로 이동했다. 환경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자신의 의견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제야 알게 된 그날의 주제는 환경 문제였다, 참여자들은 비폭력 시민 환경 운동가들이었다.

깊이 생각해 본 적 없는 주제였고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었다.  
도대체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한 영어는 다 어디로 가버린 걸까?

정신적 지옥을 경험하며 갈등하기 시작했다.  
사정이 있다며 자연스러운 거짓말과 함께 소그룹 방을 나갈까?

그리고 이상한 한국인 한 명으로 잊히는 게 나올 것인가?

멘붕 속에서도 예의는 지키는 아시아인으로 이 진땀 나는 순간을 견뎌낼 것인가?  
환경에 대한 개인의 의견을 듣고 서로 공감하는 대화였지만 나로서는 알아듣지 못하는 이야기를 공감해주기가 힘들었다.

마치 나는 인터넷 기사를 읽을 때, 기사를 가리는 광고가 된 기분이었다.  
그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도 무시할 수도 없고, 간과할 수도 없는 존재..  
참가자 한 명은 본인이 생각하는 환경 관련 갈등 상황을 이야기하며 마음속에 두었던 분노를 드러내기도 했다.

그 순간 나갈까 말까 고민하던 난 무서워서 그냥 그 순간을 견디기로 결심했다.  
내가 갑자기 나가고 나면 그 사람의 분노가 더 커질 것 같았다.  
오늘만 잘 견뎌보자. 이 순간을 잘 참아내고 그래도 한국인으로서 매너는 지켰다는 나만의 유종의 미를 이루리라 다짐했다.

## 나는 누구? 여긴 어디?

그렇게 소그룹 토론을 마치고 다시 전체 방에 모여 성찰의 시간이 되었다.  
난 긍정적이고 적절한 멘트로 분위기를 흐리지 않고 마무리했다.  
주제가 뭔지도 모르고 참여한 아주 큰 실패 사례로 모르는 모임에 함부로 참여하면 안 된다는 큰 가르침을 주는 경험이었다.

이후 모임의 주최자에게서 연락이 왔다. 다음번 모임에도 오라고 했다. 시간이 되면 가겠다고 했지만 가고 싶지 않았다.

두 시간 반 내내 “나는 누구? 여긴 어디?”라는 기분을 계속해서 느끼며 사람들과 연결되지 못하는 나를 마주하는 건 고통스러웠다.

이후 꾸준히 이 모임의 초대 메일을 받았다. 나의 고통이 잊힐 때쯤 다시 한번 용기내기로 했다.

모임의 프로세스는 동일했다. 전체 모임방에서 개별 소개와 안내 후 소그룹 토론으로 이어졌다.

소그룹 토론 진행 전 주최자는 참여자에게 질문이나 할 말이 있는지 물었다.

난 지난번과 같은 고통스러움과 자괴감은 겪고 싶지 않았다.

나는 손을 들었다.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니 혹시나 못 알아들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한국에서는 통역이라는 일을 하며 살아가는 나에게 굴욕적인 상황이었지만 현실을 받아들이고 싶었다.

### 소그룹 방에서의 대화

소그룹 방으로 모여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각자의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한 대화가 이어졌다.

지난번과 다르게 대화는 흥미로웠고 충분히 공감할 수 있었다. 중간에 한 개의 단어를 이해하지 못한 나는 다른 단어로 표현해주겠냐고 요청했다. 상대방은 다른 단어로 바꾸어 표현해주었다.

소그룹에 참여한 4명 중 한 명은 이주민이나 외국인 난민과 일한 경험이 있는 활동가라고 했다. 이러한 상황을 잘 이해한다면 언제든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면 물어보라고 했다.

내가 그 정도로 영어가 안 되는 건 아닌데 라는 약간의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당하며 그녀의 배려에 감사를 표했다.

내가 다시 한번 참여하겠다고 결심했을 때는 이미 지난번과 같은 경험은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었다.

아는 척하며 고개를 끄덕이지만 전혀 연결되지 않는 기분, 그건 너무 고통스러웠다. 하지만 이번 모음은 토론 다운 토론을 경험하며 두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다.

소그룹 대화를 마무리하고 다시 전체 모임방에서 서로의 성찰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다. 소그룹에서 함께 했던 이들의 배려에 감사했다. 하지만 나로 인해 조금은 불편했을 다른 사람들에게 대한 미안함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내 무식을 드러내는 건 내가 감당할 일이지만 누군가의 대화의 깊이에 방해가 된다는 미안함은 극복하기 힘들다. 마치 내가 들어간 소모임 사람들은 ‘우리 소그룹에 외국인인 들어왔네, 오늘 그룹 잘못 걸렸네’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았다.

## 대화란 무엇인가

성찰의 시간 동안 사람들의 배려 속에서 내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그림에도 또 미안했는지를 나누었다.

주최자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참여자 모두에게 설명했다.

“대화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잘 경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가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을 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대화는 상호 간의 이해를 기반으로 한다. 듣는 사람만의 책임이 아닌 말을 하는 사람 또한 상대가 이해할 수 있도록 말을 해야 하는 책임도 있는 것이다.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 그게 한국어든 영어든, 우리는 서로 상대방에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와 표현으로 이야기를 해야 한다.”

나와 함께 소그룹에 참여한 한 미국인은 내가 취약점(vulnerable)을 드러내고 모르는 단어를 물어보는 모습이 놀라웠다고 했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데는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한지 그는 이해했다.

우리는 대화 중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하기 어려운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내 무식을 드러내야 한다. 내가 다른걸 얼마나 많이 아는가와 상관없이 그 순간 내가 모르는 것은 무식한 것이다.

둘째, 상대가 이야기에 빠져 더 많은 이야기, 더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게 경청자로 촉진해 주고 싶지만 중간에 맥을 끊어 찬물을 끼얹는 건 아닌지 고민한다.

셋째, 내가 모르는 단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소그룹 방의 사람들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표현할 때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용어를 골라서 사용할 것이다. 한마디로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맘대로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상대와 용어를 바꿔 가며 상대가 이해하는 용어를 써야 한다는 생각으로 대화하는 건 분명히 다르다. 일종의 불편함이 존재하게 된다.

### 모르는 것을 물어보는 용기

그래서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하다.

사실 처음 내가 참여했을 때처럼 혼자 지옥과 무식을 경험하더라도 그냥 아는 척하는 게 더 쉽다.

그럼에도 내가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하더라도 이후 나아질 수 있다는 경험을 통역을 통해서 무수히 해왔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는 개떡같이 이야기하는 누군가의 말도 눈치껏 행간을 읽어 내야 인정 받는다.

잘 들어야 하고, 잘 이해해야 하고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제대로 해석해야 한다.

그럼에도 “잘 모르겠어요. 다시 설명 부탁드립니다.”라고 하는 건 큰 용기가 필요하다.

나는 통역이라는 일을 하면서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지 않고, 짐작으로 넘어가면 결국 소통에 문제가 되는 경우를 나는 수없이 겪었다.

모르는 것을 질문하면 답변과 설명을 듣고 그 부족함을 줄이고 더 잘 이해하는 통역사가 되어 고객을 더 잘 지원할 수 있다. 하지만 더 이상 그 고객은 나를 불러주지 않을 수도 있다.

모르는 분야를 간과하지 않고 학습하고 배우고, 더 잘하려는 나를 받아주는 고객은 지속적으로 연결된다.

## 연결된 세상

기대에 못 미치는 나를 마주한 고객의 실망은 더 능력 있는 사람과 연결을 위하여 더 이상 나와 연결되지 않는다.

세상은 멋진 나를 더 좋아하는 듯하고, 그런 나를 기대한다. 나 또한 그런 내가 되고 싶다.

하지만 나는 그렇지 못했고, 지금도 그렇지 못한 나를 수없이 마주한다.

나는 과연 나의 부족함을 스스로 느낄 때, 모자란 나를 마주하고 오롯이 받아들일 수 있는가?

통역의 경우처럼 그 모임에서 참여자들이 가진 기대와 상상의 나를 버리고 진짜 내가 되면 두 가지의 결과 중 하나다. 그들과 앞으로 계속 연결될 것인가 아니면 불편한 존재로 연결을 잃을 것인가!

부족한 나를 드러내는 것은 어렵고 용기가 필요하다. 내가 드러낸 취약점에도 불구하고 연결된 이들은 누군가의 취약점을 수용한다. 취약점을 수용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약점이 아니라 성장의 요소로 수용한다. 치부가 아니라 함께 탐험하고 지원해야 할 연결의 고리로 받아들인다.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오늘도 난 쿵쾅거리며 나대는 심장을 진정시키며 손들 용기를 내기 위해 애를 쓴다. 그럼 에도 연결될 이들을 기대하며, 오롯이 나로 함께 할 수 있는 이들을 기대하며 오늘도 나는 묻는다.

나는 과연 나의 부족함을 스스로 인지하며 모자란 나를 마주하고 오롯이 받아들이고 있는가?

# 내 인생을 화양연화로 이끈 뭐라도학교

엄 성 희 ●●●

## 32년의 교직 생활을 마치고

퇴직 후 수원시평생학습관의 '인생 수업 2기'에 참여하고 '뭐라도학교(Active Senior Academy)' 회원으로 활동하게 되면서 생활패턴이 바뀌고 그토록 바라던 소속감과 성취감을 갖는 일을 찾게 되었습니다.

뭐라도학교 기획팀원으로 연중행사 기획, 월담 행사 진행

"Senior Culture Club" 단장으로 문화, 예술 공연, 전시 감상 활동

뭐라도카페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으로 카페 운영

동화구연 연수, 자격증 취득, 봉사활동

수원시교육청자원봉사센터장으로 봉사

타로카드, 게이트볼 등 취미활동

뭐라도학교 이사장으로 봉사하면서 인생 후반기를 활짝 꽃피우고 있습니다.

2013년 8월 32년의 교직 생활을 마치고 그동안 맘껏 즐기지 못한 문화, 예술 활동과 여행을 하며 지내려고 수원 예총과 수원시 인문대학, 수원시평생학습관의 음악, 미술, 영어 등 강의를 듣고 라인댄스, 재즈 피아노, 여행도 해보았지만, 그동안 직장 생활에서의 소속감, 성취감을 얻을 수 없어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었습니다.

지인의 권유로 2015년 수원시평생학습관의 '인생 수업 2기'에 참여하고 '뭐라도학교(Active Senior Academy)' 회원으로 활동하게 되면서 생활패턴이 바뀌고 그토록 바라던 소속감과 성취감을 갖는 일을 찾게 되었습니다.

2015~2016년 ‘뫼라도학교’ 기획팀원으로 연중행사를 기획하고, “Senior Culture Club” 단장으로 회원들과 문화, 예술 활동을 하였고, “뫼라도카페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으로서 카페사업을 하였습니다.

기획팀에서는 연중행사를 준비하는데 여기에도 하나의 학교라서 매주 교무회의도 하고, 이사회, 체육행사, 단합대회, 세미나, 강사교육, 신입회원 프로그램 진행 등 다양한 행사와 활동이 있습니다.

### 액티브 시니어로서의 삶

2015년 10월 수원시 주관 평생학습축제에서는 라인댄스를 지도하여 거북이의 ‘빙고’ 송에 맞춰 flash mob으로 시니어들의 단합된 멋진 댄스로 행궁광장의 열기를 뜨겁게 하는 인기를 끌었고,

매월 진행하는 “월담”을 기획하여 유명 강사 이외에도 우리 시니어들에게 알맞은 주제를 선정하여, “와인 센스있게 즐기기”, 시대의 어른 채현국 이사장의 “삶이 깊어지는 이야기”, “웰다잉은 웰리빙이다”, 연탄길 이철환 작가의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 “갱년기 여성 건강과 변화” “홍차의 세계”, “시니어 취업과 창업”, “카페 사회적 기업 사례” 등의 강의의 사회를 맡아 진행하였습니다.

커뮤니티인 ‘Senior Culture Club’을 운영하여 밴드에 수시로 문화, 예술 관련 정보를 올리고 체험이나 감상 등을 서로 공유하고 있으며, 주로 경기문화의전당, 수원SK아트리움, 굿모닝하우스, 수원아이파크미술관, 수원시립미술관 등의 행사 중 무료나 적은 비용으로 즐길 수 있는 공연, 전시를 소개하여, 매월 문화가 있는 날에는 음악회, 전시회 프로그램을 정하여 회원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수원시평생학습관에서 2014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액티브시니어 인생수업’을 수료한 뫼라도학교 회원 10명이 모여 사업단을 조직하여, 학습관내에 위치한 카페를 직접 운영하고 이 카페 공간을 베이스 캠프로 삼아 사업장을 점차 늘려 시니어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고, 사회봉사활동, 문화예술활동 등 지역사회 내 사회공헌활동을 하고자, 카페 사업을 결정한 후에 커피, 티소믈리에 자격 취득을 위해 일자리창출진흥원에서 교육을 받았고, 조합원들과 카페 탐방과 커피, 티, 베이킹, 식음료,

상권 분석, 회계 등을 분담하여 공부하고 뭐라도카페사회적협동조합으로 1년간 카페 운영과 바리스타 교육을 하였습니다.

2016년 동화구연 강사 자격을 취득하여 중앙도서관에서 동화구연 봉사활동도 하였습니다.

동화구연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유치원 교사였던 언니처럼 실감나고 재미있게 들려주지 못했던 동화를 할머니가 되면 손주에게 해주고픈 마음에서였지만, 너무 재미있게 배웠고 대회에 나가기 위해 연습하면서 새로운 도전에 대한 성취감과 자신감도 생겼고, 그 후 봉사활동으로 연결되면서 아이들을 직접 만나 동화.동극을 하며 동심의 세계에서 즐겁게 지냈습니다.

## 자원봉사 활동

2017년 자원봉사자들을 학교와 매칭시켜주는 수원시교육청자원봉사코디네이터로, 2018~2019년 수원시교육자원봉사센터장으로 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학교에서 요구하는 자원봉사활동의 영역은“기초학습지도, 멘토링, 도서관 서포터, 현장체험학습 지원, 학교안전 서포터, 전래놀이, 흡연.음주교육, 회복적 생활교육 등”으로 필요 인원이 너무나 많은데 비해 자원봉사자 희망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자원봉사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자원봉사자들에게 “전래놀이, 책놀이, 회복적 생활교육” 등의 연수를 실시하여, 학교 현장에서 재능기부의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학교와의 연계활동을 하였고, 특히 뭐라도학교 회원 26명을 대상으로 전래놀이 연수를 실시한 후, 자체 사업단을 만들어 학교현장, 양로원에서 봉사활동, 꿈의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역량강화를 위한 심화 연수, 다문화 교육 등으로 현재까지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퇴직 예정교사들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위한 연수, 꿈의 학교 모니터 요원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위해 일하면서,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봉사활동을 통해 자존감 상승과 보람으로 뿌듯해하는 걸 보면서 저 또한 의미를 찾았고 보람도 느꼈습니다.

2019년 타로 강의를 듣고 타로동아리를 결성하여 매주 모여 자체 연수를 하면서 역량강화와 기술 연마를 하고 있고, 평생학습관이나 뭐라도학교 행사시 타로 행사를 하며 봉사하고 있고, 차기 교육도 준비 중입니다.

### 지금 이 시기가 '화양연화'

2018년 게이트볼 연수를 받았고, 2020년 8기 회원님의 노력으로 창릉문 근처에 뭐라도학교 회원들의 전용구장이 마련되어 놀이터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게이트볼은 노인들의 놀이가 아니고 누구나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놀이이자 게임이고, 심판 자격증을 취득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회원도 있습니다. 관심있는 회원님들에게도 구장의 문은 활짝 열려 있고 적극 추천합니다.

2020-2021년 뭐라도학교 이사장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뭐라도학교'는 제2의 삶을 위한 건강한 학습, 학습을 통해 연결된 동료, 가치와 취향에 따라 어울리는 모임,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한 전문적 활동,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위한 시니어들의 베이스 캠프입니다.

돈이 되는 일만이 가치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누고 베풀며 함께하는 봉사활동이 진정한 삶의 가치가 아닐까요? 금전적 기부나 육체적인 봉사활동은 조건이 전제되어야 하지만, 재능기부의 봉사는 내가 자격을 갖추도록 노력하면 가능한 일이고 스스로의 성취감, 보람도 함께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은퇴 후 30년의 삶이 새롭게 발견되고 있다하여 이 시기를 'Hot Age' 라고 한답니다. 제 인생의 지금 이 시기가 花樣年華라고 생각합니다. 여가를 즐기면서 편안하고 보람된 노후를 보내려면 Community, Job, 봉사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능력을 기부하는 일을 찾으시면 자존감, 소속감, 성취감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많은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보도 찾아보시고 미리미리 준비하여 봉사를 하는 삶으로 더욱 즐겁고 보람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 인생이모작을 평생학습관에서 짓자!

우 성 재 ●●●

## 공과대학을 졸업한 후~

나이가 들어 머리가 반백이 되어, 하게 되는 일들도 다양한 생각들이 뒤따르게 마련이지만, 그냥 머릿속에서 인식만하고 흐르는 물처럼 포기하고 지나가는 일이 다반사다. 이제 그런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한다. 오늘 '나의 삶을 바꾼 살아 있는 배움'의 수기 발표에 앞서서 제 소개를 간단히 피력하고자 합니다.

저는 일명 '베이비부머' 시대 태어난 흔히들 이야기하는 386세대로써 공과대학을 졸업 후 녹십자의 료공업(주) 입사하여 경영인으로 퇴사한 후 지금까지 개인사업대표로서 가정과 사회에 맡은바 소임을 충실하게 해오는 평범한 사람이다. 나이가 몇 년 후면 고회가 된다. 지금 이 시대는 백세를 갈구하는 시대이다.

내 나이도 신중장년세대라 칭하지 않는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특히나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는 세대이다. 옛날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다. 지금 이 시대는 자연적으로 현실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평생학습관, 노인복지회관이 생기고 또한 사회적으로도 초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 문제가 크게 이슈화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난 과거 노인 취급을 받을 나이인데 이 시대는 중장년이라는 칭호와 함께 제2의 인생을 열고자 의욕이 샘솟는다.

하지만 어떤 가, 속절없이 지나친 세월을, 한탄한들 소용이 없지 않는가! 즉, 후회한들 소용이 없다. 그래서 주자(朱子)선생께서「朱子十悔訓」에서 '少不勤學老後悔'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말 그대로 젊었을 때 부지런히 배우지 않으면 늙어서 후회한다는 말이다. 이런 말들은 나이가 들면서 느끼게 되는 인생 회고이기도 하다. 하지만 사람은 이성을 가진 동물로 또 다른 변모를 끊임없이 추구하게

되고, 남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

이러한 시기에 내게로 찾아온 것이 있었다. 그것은 수원평생학습관(LONG LIFE SCHOOL)의 뭐라도학교 인생수업이다. 평생학습관이 있다는 말은 진작 알고는 있었지만 관심 밖이었다. 그 당시 저는 취미로 숲해설가, 카코그래프라는 활동을 하고 있었다. 그 때 함께 했던 동료가 한번 참가해 볼직 하다는 말을 저에게 전해주었다. 그 제안으로 말미암아 뭐라도학교 인생수업8기로 신청하게 되었다.

### 뭐라도학교 인생수업 8기

뭐라도학교를 간략하게 소개 하자면 이렇다. 수원시평생학습관의 액티브시니어아카데미로서 제2의 삶을 위한 활력 넘치는 배움과 실천의 장으로 인생2모작을 설계하는 시니어를 중심으로 이끌어 가는 배움의 장이다. 그래서 캐치프래스가 ' 뭐라도 배우고, 뭐라도 나누고, 뭐라도 즐기고, 뭐라도 행하자!' 라 하여 시니어들 스스로 자신의 재능과 경험, 지식과 자산을 발견하고 나누면서, 시니어는 물론 그 이웃까지 즐겁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즐거운 학교이다.

오늘 제가 평생학습관 뭐라도학교 인생수업 8기생으로 먼저 경험하고 느꼈던 이야기의 보따리를 열어 볼까 한다. 2018년 뭐라도학교 인생수업8기로 36명이 입교하여 1회 오리엔테이션과 1박2일 워크숍을 거쳐 12회 수료식까지 총42시간으로 인생이모작을 짓는데 필요한 자양분을 몸서 느끼고 배우고 실습을 통해서 32명이 명예롭게 수료하는 영광을 안았다.

그래서 결과물로서 8기 사업단이 결성된다. 즉, '명심보감사업단' '스피치사업단' '여행 사업단' '댄스사업단' 이다. 다들 결성된 사업단은 2개월간의 사업을 거쳐서 진행 되었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정리가 되어서 "8기동아리"로 재결성되어 매주 목요일 2시간씩 주제를 선정하여 주제발표자가 발표 후에는 브레인스토밍방식으로 열띤 토론으로 자기계발에 일조를 하여 너 나 할 것 없이 보람을 느끼게 된다. 비록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장기간 휴업중이다.

하지만 그 이야기의 주인공들은 지금의 절친히 되어 행복함을 함께 누리는 인생수업8기동기 선생님

들이다. 인생수업 8기를 이끌어 가는 집행부의 임원들이고 제가 회장이며 여성부회장, 남성부회장, 그리고 여성총무와 뜻을 함께하는 몇 분이 더 있다. 이 절친들은 일을 도모하는데도 함께하지만, 평생학습관에서 진행되는 누구나 학교의 명심보감을 지도하는 강사인 제 강의를 듣는 수강생들 이기고 하다.

저 또한 정통으로 유학(儒學)을 공부한 이력은 없지만 우연한 기회에 명심보감의 매력에 빠져 독학으로 공부하던차 수원평생학습관 누구나 학교에서 재능기부로 강의를 하게 되었다. 부족하지만 서로 배우면서 가르치는 강사가 되었다. 그래서 절친들은 1주일에 2시간씩 명심보감의 제1편인 계선편에서 제20편인 부행편을 공부하는데, 강좌가 끝날 때까지 그들과 함께 하게 된다.

요즘은 흔히 코드가 맞아야 함께 할 수 있다고 하지 않던가! 어떤 일이든 알아서 하는 것과 좋아서 하는 것과 즐기면서 하는 것은 차이가 있고 특히나 즐기면서 하는 일은 싫증도 안 나고 밤샘해도 피곤하지 않다고 여러분도 느끼 실줄 안다. 특히나 우리들처럼 절친히 될 수 있는 필요충분조건은 가르치는 사람도 배우는 학생도 명심보감에 흠뻑 매료되어서 그 좋은 감정이 가슴으로 와 닿아야 한다.

### 이 시대에 명심보감이 필요한가?

어쩐 이 시대에 고리타분한 유교철학의 대명사인 명심보감은 말 그대로 좋은 성현들의 말씀을 모은 귀감이 되는 책이다. 지금 이 순간도 인터넷과 휴대폰의 멋진 성인 오락기인 게임과 무수한 유튜브와 볼거리가 많은데도, 명심보감은 더더욱 배워야 할 “가치”가 있다고 본다.

‘초록은 동색이고 가재는 게편’ 이고 ‘끼리 끼리 만난다고 하지 않던가!’

그래서 그런지 더 가깝고 함께 나누며 먹고 즐기는 가운데 식구 이상으로 가까운 사이인 절친히 되어 감을 느끼곤 한다. 나이가 들면서 생각 하는 목표 지향성도 더더욱 마음 씀씀이도 배려와 이해로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

나이가 들어서 어쩐 함께 함에 감사하는 마음도 들지만 이렇게 만날 수 있는 행운도 하늘의 조화인가

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다. 그래서 뭐라도학교에서도 선, 후배 기수가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다. 인생수업8기들은 무엇이 달라도 다르며 팀워크도 좋고 단합하는 마음이 크다며 부러워들 한다. 그럴 때마다 절친들이 하는 말은 회장을 맡고 있는 제가 연장자인 선배와 후배동료들 사이를 잘 조화롭게 리드하면서 정감 있게 이끌어 감으로서 우리8기가 단합된 모습을 보여 줄 수 있다며 힘이 마르도록 칭찬해 준다.

그렇다. 모임은 이끌어 가는 리더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회원들의 마음을 읽어서 서로가 이해와 배려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덧붙여서 말하고 행동하는 일이 요구된다. 그렇게 된다면 “열정”으로 안 될 일도 두려워 할 일도 없다고 본다. 그래서 나는 슬며시 눈을 감고 생각해본다. 이 나이에 저와 같은 행운아가 어디에 또 있겠는가 하고 말이다. 좋은 절친 들을 만나서 함께 할 수 있다는 행운을 준 모든분께 감사한다.

저처럼 모든 분들이 수원평생학습관에서 천재일우(千載一遇)의 기회를 찾게 되길 바란다. 영어의 인타 임(in time)이라는 말뜻처럼, 어떤 일을 정확히 가려서 정시에 한다고는 하더라도 그 때라는 것은 자기가 가장 필요하고 절실함을 느낄 때가 아닐까? 어쩔, 그 시점이 가장 적기라고 생각된다.

비록 젊은 날에는 시간과 때와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없어서 하고파도 못한 일을 지금이라도 도전해 보자! 우리들의 한마당 놀이터인 수원평생학습관에서 또 한 번 찾아 온 인생후반전을 전개하여 인생이 모작(人生二耗作)의 황금시절을 마음과 뜻이 통하는 절친들과 함께 동행(同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다행이고 행복한 일인가!

아는 자 보다는 좋아하는 자가 더 낫고, 즐기는 자는 누구도 넘볼 수가 없다고 말한다. 지금이라도 할 수 있음에 다행과 더불어 행복함을 느끼면서 건강하게 생활을 영위 하고 모든 일에 비록 지금이 때가 아니라고 생각 말고 지금 할 수 있어서 더 행복함을 느끼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 누구나 기타향기

안수희 ●●●

## <누구나 기타향기>의 첫 번째 공연

2016년 3월 15일 저녁 7시 수원시평생학습관 도요새 책방에서 사회학자 노명우 선생님의 북콘서트가 열렸다. 그날 그 시간을 잊지 못하는 것은 우리 기타동아리 <누구나 기타향기>의 첫 번째 공연이었기 때문이다. 북콘서트 주제인 '혼자 산다는 것에 대하여'의 취지에 맞는 2곡을 선택했다.

<걱정 말아요 그대>와 <그 중에 그대를 만나>. 우리 기타 동아리에게도 특별한 곡이었다. 두근두근 모두의 떨림이 고스란히 전달되었다. 얼굴은 홍조를 띠었다. 드디어 시작된 공연. 노래가 시작되는 순간 걱정이 사라졌다. 그 중에 그대들을 만나 우리는 노래하고 있어요. 걱정 따위는 내려놓아요. 그대. 우리 모두 한마음으로 잘하고 있어요.

우리 동아리의 출발은 수원시평생학습관 누구나 기타수업에서였다. 누구나 선생님이 되고 누구나 학생이 되어 가르치고 배우는 누구나 수업. 처음엔 딸아이가 배우고 싶어 했다. 혼자서는 절대 갈 수 없다고 해서 같이 참여했던 첫수업. 그렇게 참여하게 된 첫수업에서 그만 사랑에 빠지고 말았다. 대학생인 성도영 선생님은 수업 시작 전에 커피를 내려주었는데 커피 향이 장난이 아니었다. 워낙 커피홀릭인 내게 그 향기와 기타소리는 환상의 짝꿍이었다.

맨 처음 배우게 된 노래가 <고백>. 아마도 코드 몇 개를 배우겠지 하고 들어간 기타수업에서 영화 <클래식>에서 나온 텔리 스파이스의 <고백>을 배우게 되다니. 나도 다녀야 할 분명한 이유가 생겼다. 기타를 구입하고 딸아子和 매주 토요일 아침이면 수업엘 참여했다. 사춘기 감성이 풍부했던 딸아이가 같이 소통하며 종알종알 이야기하는 것은 덤으로 얻은 행복이었다.

## 동아리에 모인 사람들

기타수업에는 보통 6,7명 정도의 수강생이 모였다. 기타에 관한 다양한 이력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학창 시절 기타를 쳐보았던 사람도 있었고 왕초보인 사람도 있었다. 직업 또한 다양했다. 학교 선생님, 시간 강사, 전업 주부, 중학생, 고등학생 등 다양했다. 모두가 원하는 수업이 마음속으로야 있었겠지만 우린 선생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했다.

〈고백〉으로 시작해서 〈사랑 빛〉, 〈사랑인걸〉, 〈그게 아니고〉, 〈사랑은 은하수 다방에서〉, 〈옛 사랑〉, 〈떨어지다〉, 〈기억의 습작〉,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등등. 나중에 생각해보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곡도 있었다. 예를 들면 〈기억의 습작〉. 너무나 어려운 코드가 많아서 손가락에 지진이 났다.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들어오고 포기하고 떠났다. 우리는 남았다. 그 시절부터 꾸준히 토요일이면 만나고 연습하고 격려했다. 고백하자면 나는 성도영 선생님이 내려주는 토요일 커피를 포기하기 어려웠다.

언젠가부터 선생님과 우리는 서로 같이 공부하지 않았나 싶다. 선생님이 배우기 시작한 핑거 연습곡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었다. 초보가 하기엔 어려운 곡이어서 많이 힘들었다. 우리 동아리 식구들은 힘든 시간들을 이겨냈다. 부족한 사람은 부족한 대로 조금 빨리 습득한 동아리 원에게 배웠다. 핑거 곡들을 연주하기 위한 기초 수업으로 타브악보 보는 방법을 배우고 마사키 키시베의 기타연주를 배우기 까지 2년의 시간이 흘러갔다.

## 기타는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그 동안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고 아버님이 돌아가셨다. 큰 아이는 재수를 결심했고 또 낙방했으며 삼수를 선택했다. 많은 날들이 에너지를 필요로 했다. 현실은 너무 자주, 많이 주저앉게 했다. 끝없는 공간으로 떨어지는 듯 한 기이한 몸의 느낌도 경험했다. 그럴 때마다 기타를 잡았다. 〈Like Wind〉를 치면 위로가 되었다. 코타로 오시오의 〈Wind song〉을 치면서 같이 울었다. 마사키 키시베의 〈꽃〉을, 〈November〉를 치면서 다시 섰다.

휴학 중이었던 선생님이 다시 대학생이 되었다. 조교 일을 맡으며 시간을 내기가 어려워졌다. 어쩔 수 없이 선생님이 오시지 못하는 날엔 누구나 수업의 특징을 살려 우리 모두가 누구나 선생님이 되기로 했다. 빼놓을 수 없는 커피를 위해 동아리팀 총무를 맡고 있는 지현 쌤이 커피를 공수했고 우리 모두는 간단한 간식을 준비했다. 선생님은 동영상을 밴드에 올려주셨고 모두는 집에서 연습을 거쳐 토요일엔 모여 검증을 했다. 오류를 알아가고 각자의 경험이 더해지면서 이야기가 풍성해졌다. 그렇지만 선생님의 공백을 메워줄 무언가가 필요했다.

2년의 공부를 공개하면 어떨까? 마음속에 결심이 섰다. 북콘서트 기획단으로 참여하고 있던 내가 아이디어를 냈다. “우리 공연하면 어떨까요?” 모두가 망설이면서도 설레는 동요가 보였다. 그래 이거면 됐다. 강력하게 밀어붙였다. 우린 할 수 있다, 해보자, 아이들도 연주회를 통해 성장한다, 우리도 그럴 때가 됐다. 이런 요지의 말들을 했던거 같다. 모두가 동의했다.

선생님이 가르쳐주신 <그 중에 그대를 만나>와 [응답하라 1988] 드라마에 삽입된 곡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독여 준 노래 <걱정 말아요, 그대>를 선택했다. 한 달 동안의 연습기간 내내 행복했다. 어떤 옷을 입을지, 액세서리를 달지 말지, 귀걸이를 할까 말까 여러 가지를 의논하며 사춘기 소녀들처럼 까르륵 웃었다. 행복했다.

무사히 공연을 마치고 평생학습관 근처 오븐데이에서 늦은 저녁과 함께 맥주를 한잔씩 했다. 북콘서트이니만큼 노명우 선생님의 책도 다 읽고 참여했던 우리들은 증언했다. 이것이 서로 함께 배우는 공부라고. 맥주잔을 들고 누군가의 선창에 따라 우렁차게 ‘위하여’를 외쳤다. 그 ‘위하여’ 소리는 힘이 짙었다.

# 나는 왜 쓰는가

유미희 ●●●

## 일만 했지 놀 줄을 알아야죠

저는 오래 다니던 직장을 퇴직하고 무려한 시간을 채우려고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일만 할 줄 알지 놀 줄을 알아야죠. 그래서 책 읽기도 일하듯이 했던 것 같아요. 수원의 자량이 도서관 시설이 좋다는 거잖아요? 2017년에 4일씩 출근하듯이 도서관으로 책을 읽으러 다녔어요. 직장 다닐 때는 업무 관련 아니면 1년에 소설책 한 권을 못 읽었죠.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책을 안 읽고 그동안 어떻게 살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책 읽는 재미는 있었지만 읽고 마는 게 아쉬워서 도서리뷰 형식으로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어요. 몇 년 동안 쓰지 않았던 블로그를 다시 운영하면서 체계적인 글쓰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블로그에 남기는 짤막한 감상평은 1,000자를 채우기 어렵더라고요. 당시 사이트 다카시의 <혼자 있는 시간의 힘>, <2000자를 쓰는 힘> 같은 책을 읽던 때라 나도 2천 자를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 반 욕심 반이 생기더라고요.

두드리면 열린다고 여기저기 찾아보니, 그해 9월에 수원시평생학습관에서 '삶을 쓰다'라는 글쓰기 수업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작가님한테서 5회차 정도 수업을 받았는데 글을 써오는 숙제가 있었어요. 써온 사람이 자기 글을 낭독하면 다른 사람들이 듣고 감상평을 얘기해요. 작가님이 정리해서 코멘트를 해 주셨고요. 수강생들이 글쓰기 초보여서 저처럼 1000자 쓰는 것도 버거운 사람들이었는데 작가님 격려해 주고 같이 하는 분들도 서로 칭찬하고 분위기였어요. 작가님의 수업방식이 참 좋았어요.

## 나도 글을 쓸 수 있을까?

그러면서 자기의 얘기를 써보라고 하더라고요. 자기 삶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나잖아요. 저는 그 작가님과 수업하면서 나도 글을 쓸 수 있겠다는 용기를 얻었어요. 첫 글쓰기 선생님께서 그런 분을 만난 건 운이 좋았던 거죠. 감히 쓸 수 있을까 했던 2천 자를 제가 쓰게 되더라고요. 내 얘기니까 가능했던 거죠. 쓸 거리가 막 생각나는 거예요. 그렇게 생활 에세이를 계속 제 블로그에 올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기록하고 싶었어요. 내 시대가 가고 아들에게 또 그 아들에게까지 남겨질지 아닐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냥 제 역사로 기록하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 부모님과 이야기, 형제자매 이야기, 직장생활의 에피소드가 자연스럽게 쌓이게 되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생각나는 일들이라면, 내가 살아온 많은 일상에서 살아남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나에게 소중한 것이어서 일 테고요. 저는 그것들을 버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때론 내가 쓰는 이야기들로부터 새로운 힘을 얻기도 합니다. 행복한 감정이 들고 평온한 마음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픈 추억이라고 슬픈 것만은 아니었어요. 후회스럽고 마음에 걸리는 일들을 글로 쓰면 그 사건에서 해방되는 느낌도 들었어요. 글을 읽을 때마다 여지없이 눈물이 나는 것도 있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것들이죠.

저는 상상의 이야기를 쓰는 것보다 내가 경험한 사실들을 쓰는 게 좋습니다. 쓰다 보면 살아갈 만한 세상이라는 희망도 듭니다. 어제의 일, 좀 전의 일도 실제로 존재했던 삶의 기록이 되니까 살아있는 한 쓸 것은 계속 있는 셈입니다.

## 지나온 시간은 귀한 자산

우리는 과거를 던지고 미래로 나갑니다. 어제를 무시하고 잊어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지요. 지나온 시간은 나에게 귀한 자산입니다. 누구도 빼앗지 못할 소중한 경험이고 가치입니다. 내가 살아온 날들이 지금의 나입니다. 내일이란 시간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내일이라고 희망을 걸고 싶고 상상하는 내일만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건 과거와 연결된 지금이라는 순간입니다.

헤로도투스의 말처럼 “이야기는 자신을 소모하지 않습니다. 이야기는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펼쳐지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도 글쓰기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자기의 이야기를 쓰고 구성원들이 함께 나누는 소중한 경험을 했습니다. 타인을 알아가는 방식으로 대화를 나누는 것도 좋지만, 글을 써서 공유하는 것은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글쓰기는 어느 정도 진실을 말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자기의 이야기를 쓰면서 하지 않은 말은 있겠지만,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글로 소통하는 방법은 꽤 진지하고 즐거운 일입니다.

글을 쓰다 보면 시간이 후딱 지납니다. 몇 시간이고 앉아서 쓰게 되는 이유, 아마도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는 힘이죠. 강력한 힘이에요. 오래 사는 시대에 외로운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남아도는 노년의 시간은 고통이라고 합니다. 외로움을 인간의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가능하면 즐거운 일로 시간을 보내야겠죠. 가족이 있어도 친구가 있어도 항상 나를 만족시키지 못하잖아요.

자녀들에게 외롭다고 말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돈 달라는 것만큼 부담을 느낀다고 하네요. 그리고 보면, 이 세상에 가장 믿을만한 친구는 자기 자신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에 의지해서 외로움을 해소하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어요.

글쓰기는 나이 들어서도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취미라는 생각이 들어요. 돈도 안 들고 특별한 환경이 아니라도 글은 쓸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죽을 때까지 가능한 일이죠.

‘사는 것은 결국 자기 호주머니에 손을 넣는 일’이라는 말이 생각나네요. 글쓰기가 자신을 위안하고 언 손을 따뜻하게 녹여주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글쓰기를 통한 소통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전히 기회 있을 때마다 글쓰기 모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블로그에 올려서 공개하고, 브런치 작가로 카카오 브런치에도 글을 발행하지만 아직은 미흡해서 계속 배우고 싶어요. 오래 사는 시대에 가장 괜찮은 취미로 글쓰기를 추천합니다. 글쓰기라는 막강한 취미를 만들 수 있도록 실마리를 제공해 준 학습관에 감사드립니다.

# 소확행을 꿈꾸며

이 정 래 ●●●

## 어디선가 오라고 해도

재작년 만 62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문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계약기간 만료가 되어 은퇴를 하게 되었다. 대학 졸업 후 직장 조직에 들어가 월급쟁이 생활한 것을 돌이켜 보니 6개의 기관 조직에서 30년 정도 일을 했고, 사이사이에 프리랜서로도 3년 정도 일한 것으로 쳐줄 수 있었다. 이젠 나도 일할만큼 일했으니 또 어디선가 오라고 해도 이젠 절대로 가지 않겠다고 굳건히 마음 먹고 집으로 다 싸들고 들어왔다.

최근 5년 동안에는 지방에 내려가 일을 했으니 아내와 나는 주말부부였다. 토, 일요일에만 집에 있다가 월요일 새벽이면 차를 몰고 지방에 있는 직장으로 내려가곤 했다. 그런데 이제 나는 매일 집에 있어야하는 처지가 되었다. 사실 이젠 맘 편하고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매일 출근해야하는 아내는 집에서 혼자 있을 나에게 인덕션 사용법, 압력 솥으로 밥하는 법, 에어플라이 사용법, 전자 레인지 사용법, 식기 세척기 사용법, 세탁기 돌리는 법, 빨래 건조기 사용법, 무선 청소기 사용법 등을 가르쳐 주었다.

이렇게 많은 기기들이 주방에 놓여 있는지는 생각지 못했다. 나는 문과 출신이라 약간 기계치이기는 하지만 돌아온 집에서 살아남으려면 이 기계들을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데 더 이상 토를 달수가 없었다.

처음 몇 주 동안에는 아침 일찍 출근한 아내한테 전화가 오기도 했다. 인덕션 위에 솥은 똑바로 올려 놓았느냐? 인덕션 전원을 켜고 8단계로 불의 세기를 맞춰 놓고 옆에 지켜 서 있어야 한다. 6~7분 지나 밥물이 끓어 올라 솥뚜껑이 덜컹거리기 시작하면 불의 세기를 3단계로 낮춰라. 이때 시간을

총 32분에 맞춰라. 자동으로 전원이 꺼지면 솔에 절대 손을 대지 말고 적어도 20분이 지난 뒤 솔을 열어 밥을 퍼 담아라. 식탁 위에 잘 차려서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 못가는 두 아들 잘 챙겨 먹여라. 설거지 할 때는 솔이 특수 제작된 쇠이기 때문에 솔을 닦을 때는 절대 수세미로 닦지 마라. 굽히면 더 이상 쓰지 못 한다 등 등 한시도 냅 놓고 있지 않도록 아내의 직업 특성상 학생에게 하듯 내게도 꼼꼼하게 지시가 떨어졌다. 내가 이러려고 은퇴하고 집에 들어왔나 싶었다.

## 오늘도 행복을 그리는 이유

그러나 나 혼자 지방에 내려가 있는 기간 동안에 아내는 중2병을 비롯한 노도의 청소년기를 달린 두 아들을 잘 보살펴서 둘 다 별 문제 없이 대학생이 되도록 했다. 좀 더 넓은 평수의, 방도 4개나 되는 집을 새로 알아내어 이사까지 해 놓았다. 이런 일들이 한편으론 참 감사한 일이었다. 그래서 나도 은퇴해서 집에 돌아가면 가족 중심의 작은 행복을 일구어 나가는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런 마음을 먹게 해준 책이 한 권 있었는데 [칼 라르손, 오늘도 행복을 그리는 이유] 였다. 스웨덴의 국민화가인 칼 라르손의 전기와 같은 책이었다. 책 페이지마다 그가 그린 따뜻한 색상의 가족들의 모습이 담긴 그림들이 들어 있었다. 그의 부인과 8명의 자녀들이 생활한 모습을 화폭에 그려 낸 그의 그림을 본 사람들은 모두 행복해 했고 거기서 소확행, 휘게, 라곰, 피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했다.

나도 그림 그리기는 못하지만 스마트폰 카메라로 가족들의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서 나의 페이스북과 카카오톡에 올리며 설명을 함께 적어 놓다 보니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의 기록이 된다고 생각되었다.

그래도 30여년을 뛰어 다니며 활동하던 사람이 청명산 아래 아파트에서居士처럼 지내려 하니 조금은 갑갑했다. 6개월쯤 지나 세상에 대한 근질근질 호기심이 다시 발동하는 시기에 수원영상미디어 센터에서 보낸 인터넷 광고가 내 스마트폰에 하나 떴다. 단편영화 제작 워크숍에 참여할 회원을 뽑는다는 광고였다. 단편 영화를 하나 만들어 보는 교육과정이었다. 20여년 전 교사 시절 16미리 필름을 이용한 단편 영화제작 워크숍에 들어가 5분짜리 영화를 만들어 본 경험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디지털 시대가 왔고 모든 제작 제작환경과 방법이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영화 작업 현장이 너무 궁금했다.

신청서를 정성스럽게 작성해서 보냈더니 며칠 뒤에 줌(ZOOM)으로 인터뷰를 하자며 연락이 왔다. 40대 초반의 여성 강사님이었다. 현직 다큐멘터리 감독이란다. 우선 내 나이가 63세가 맞으시냐는 것이었다. 나는 신청서에 있는 내용이 다 맞고 디지털 영화 제작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그러니 같이 하게 해달라고 부탁 했다. 이번 워크숍에 신청서를 낸 사람들의 나이 평균이 30대 중반이라고 했다. 잘 어울릴 수 있겠냐고 물었다. 난 어디서든 친화력 하나는 뛰어나니까 잘 할 수 있다고 했다. 그 여성 강사님은 조금은 난처한 기색을 보이더니 알았다며 줌을 나갔다.

### 단편영화 제작에 참여하다.

며칠 뒤 12명의 젊은이들 틈에 끼여 단편영화워크숍에 참여하게 되었다. 우선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줌 수업을 3차시 한 다음에 시나리오를 한편씩 써 내라고 했다. 숙제를 주는 것이었다. 내게는 어려서부터 참 귀찮은 짓이다. 탈퇴해버릴까 하는 생각이 잠깐 들었는데 이 무슨 비난을 감당하려고 하는 생각에 참아내기로 했다. 그리고 뭘 내용으로 시나리오를 쓰나하는 고민으로 며칠 끙끙 앓았다.

스마트폰에 찍어 놓은 사진과 동영상 파일을 정리하다가 며칠 전에 찍은 동영상 파일을 한참 들여다 보게 되었다. 축구선수 출신인 큰 아들이 아파트 뒷 마당에서 아내에게, 즉 자기 엄마에게 축구를 가르쳐 주고 있었다. 발로 서로 공 차주기를 하는데 의외로 아내의 실력이 뛰어났다. 정확하게 그리고 손흥민 선수처럼 양발 잡이다. 왼발, 오른발로 차는 공이 정확하게 앞으로 나아간다. 그리고 녹음된 말이 더 감동적이었다.

나와 함께 건강을 위해 호숫가 둘레길 걷기를 했는데 이제부터는 아들과 축구를 해야겠다. 훨씬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운동량으로 체력을 키워줄 것 같다. 그리고는 나보고도 같이 축구를 하자. 몇 년전 노벨문학상을 탄 독일작가 피터 한트케의 [페널티 킥을 막는 골키퍼의 불안]이라는 소설 제목이 떠오르는 순간이었다.

순간 이 내용을 가지고 시나리오를 하나 쓰기 시작했다. 은퇴해서 집에서 소설가가 되려는 욕망을 가진 남편과 가사 일을 떠 맡기고 출근하는 아내와의 갈등을 그리며 결국 소확행을 위해 가족들간에 노력하는 모습을 그린 그럴듯한 시나리오가 하나 완성되었다.

며칠 뒤 워크숍에서 각자 써온 시나리오를 발표하고 품평회를 가졌는데 내가 쓴 시나리오가 1등으로 뽑혔고 이것으로 실제 영화를 찍기로 했다. 그리고 감독, 촬영, 연기 등의 역할을 맡아 한달 내로 영화를 완성하는 과제가 주어졌다. 내 시나리오에 4명의 회원이 배정되었는데 특별히 우리 팀에 관심을 보이던 강사는 나 혼자 북치고 장고치고 하지 말고 일을 나누라고 조언했다. 사실 내가 감독까지 하려고 했었기 때문이다.

## 즐겁게 사는 삶이 평생학습

조금은 기분이 상했지만 30대 후반의 젊은 회원에게 감독을 맡기고 나는 이미 시나리오 작가지만 연기를 하기로 했다. 그렇다면 그 내용대로라면 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나의 상대역은 나의 아내가 하면 어떨겠냐고 새 감독은 조심스럽게 물어 왔다. 어디서 배우 구하기도 힘든 판에 그러자고 하고 아내와 아들을 설득해 영화를 같이 찍기로 했다. 우리 아파트, 우리 아파트 운동장에서 찍었다. 자연스럽게 가족 영화가 되었다. 그리고 이 영화는 2020년을 기록하는 우리 가족 아카이브가 되었다.

디지털 영화제작이라는 기분 좋은 작업을 해본 경험은 아카데미 영화상 작품상과 여우 조연상이라는 한국 영화의 쾌거에도 관심을 갖게 했다.

세계 3대 영화제 중 하나가 열리는 이탈리아 베니스를 방문해 본 적이 있다. 그 때 어떻게 이 도시에 다시 올수 있을까 상상해봤다. 베니스영화제에 출품을 하게 된다면 가능하겠지 하고 기분좋은 상상을 했다. 그리고 덧붙여 레드카펫을 아름다운 이탈리아 여배우 모니카 벨루치와 함께 걷는다면 하는 기분 좋은 상상도 해본다.

평생학습을 영어로 Long-life education이라고 한다. 요람에게 무덤까지 즐거운 상상하며 움직이며 즐겁게 사는 삶이 평생학습하는 삶이라 말하고 싶다.

아내에게 스마트 폰이 온다. 곧 퇴근해서 집에 도착하니 차에 실은 무거운 물건(주로 마트에서 장바 온 것들) 들고 가야하니 가지러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오라는 전화가 틀림없다.

## 배움을 통한 노년의 도전

송금례 ●●●

어린 시절 6.25 전쟁시기를 거치면서 공부를 하고 싶었지만, 살아야겠다는 의지로 생활하다보니 무학으로 70 평생을 지냈습니다. 자식들이 하나 둘 결혼하고 손자손녀를 보며 남은 인생기간 동안 무엇을 해야하나 라는 고민을 끊임없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적은 돈으로 내가 할 수 있는게 무엇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어린시절 하지 못했던 공부가 떠올랐습니다.

곧장 복지관에 나가 평소에 관심이 있던 영어수업과 컴퓨터수업을 등록해 수강하기 시작했고 공부를 하면서 지금까지 내가 했던 노력의 결과물을 남기고 싶어 컴퓨터자격증에도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한글과 파워포인트 과정 ITQ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고, 그 동안 공부한 과정을 지켜본 강사님과 복지관의 도움으로 경로당, 복지관에 컴퓨터 강의를 진행할 때 보조강사로 활동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격증을 공부하던 중 평생을 무학으로 지내왔지만 학교를 다니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 2010년 복지관에 검정고시반에 등록하면서 학교를 가야겠다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초등학교만 졸업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을 하게 되었고, 2015년 방송통신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대학 입학 당시 나이는 75세였습니다.

대학에 입학 후 손녀보다 어린친구들과 공부를 시작했고 다양한 학문을 배우게 되면서 '내가 배우는 이 모든 수업을 소화해낼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했지만, 내가 원해서 시작한 공부를 결코 포기하고 싶지 않다, 못하니깐 배운다. 끝까지 하면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검정고시 시험을 봤을 때 보다 더 많은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학과의 학생들과 스터디 모임과 과제에도 빠지지 않으며 열심히 대학생활을 보냈습니다. 이런 공부에 대한 열정으로 대학교 입학과 동시에 졸업까지 항상 왕언니라는 별명을 가지고 생활하며 2020년 방송통신대학교를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아야할까라는 고민을 시작으로 대학교 입학까지 학업에 대한 열정으로 지난 10년간 쉼 없이 배우며 달려왔습니다.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것이 어려울 뿐 하나하나 결과물을 만들어 낼 때 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성취감과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용기와 활기찬 기운이 생겼습니다. 80세 할머니가 이루어 낸 지금의 결과물은 선생님과 동료들 그리고 주변에 도움을 주셨던 모든 분들의 도움을 통해 이루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 남은 일생도 매일 배움을 통해 건강한 노년의 생활을 지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옛 추억 그리워

노해남 ●●●

어린 시절 친구들과 풀 망태 메고 풀도 베고, 냇가에서 조개 잡고, 개구리 뒷다리 구워 먹고, 콩서리해서 구워 먹고, 밤이면 모닥불 피워놓고 밤새 밖에 누워 놀던 옛 생각이 난다.

밤에 밤에는 화롯불 피우고, 고구마 구워 먹고, 속내복 솔깃을 잡고 이로 잘강잘강 씹으면 서캐 터지는 소리 더러운 것도 모르고 엄마랑 앉아 밤늦도록 후 이웃집 할아버지가 마실 오셔서 옛 이야기 들려주던 생각이 난다. 늦은 밤에 더우면 개울가 숲 우거진 곳에서 창피한 것도 모르고 목욕도 하고 그 옛 생각이 그립다.

어렸을 적 형편이 좋지 않아 꿈에 그리던 공부도 못하고 가방끈이 짧아 움추러 들고 황당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누가 그랬던가? 사회생활 하면서 황당할 때가 많았다. 누가 학력을 물어볼 때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었다. 영어, 한문 이름 쓰라고 할 때 황당하였고, 그래도 무식하게 몸으로 때우는 봉사는 최선의 노력으로 열심히 하니 남들은 무식한 줄도 모른다. 그렇지만 답답이는 내 마음속 도사리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랑하는 남편과 자녀의 권유로 학교 문을 열게 되었다. 그랬더니 공부란 녀석이 '어서 와' 하고 나를 반긴다. 더듬거리고 책도 읽고 책을 보면 즐겁고, 골치가 지끈거리고 아팠는데 그 하고 싶었던 영어 단어도 외우고, 쓰기를 반복으로 쓰고 읽으니 영어도 눈에 들어오고, 지금은 길을 걷다 영어 간판이 나오면 흥얼거리며 알파벳도 읽어본다.

소녀는 커서 직장생활도 하고 지금의 남편 만나 살면서 30대 중반부터 부녀회장이란 단체 마을 부녀회장으로 시작 각 단체 회장을 맡으며 봉사를 계속해서 20년을 하다가 복지사 권유로 보건복지부 소속 독거노인 생활 관리사로 11년 일을 하고 정년퇴임을 하였다. 참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했던가?

고대생들과 어깨를 나란히 함께 뛰지지 않고 인정받으며 퇴직하자 남편은 나를 대단하다고 치켜세워 준다.

앞으로도 새 희망의 꿈을 가슴에 품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복지 일을 계속 하고 싶다. 지금도 시간 날 때마다 복지 쪽에서 일을 하고 있다. 공부가 어려워 그 꿈을 이룰 수 있을는지 걱정이지만 내가 꿈을 잃지 않고 공부를 시작한 만큼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한다면 꼭 꿈을 이루리라,

열심히 열심히, 아자 아자 꿈을 위해 파이팅~

# 인생콘테스트 배우고 익히며 사랑하며

허정희 ●●●

평범한 가정주부로 생활하던 제가  
아이가 성인이 될 무렵부터는  
주부로써 시간이 여유로워지면서  
문화센터 등에서 강좌를 수강신청 하여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수료한 강좌 중에서  
꽃꽂이 . 웃음치료. 실버여가지도사. 그림책지도사  
자격증 과정을 수료한것이 시간이 지나고  
어느날 수원시 어느 요양원에서 꽃꽂이자원봉사자  
를 모집한다는 소식을 듣고  
배워두기만 했지 실제 강사로 신청서내며  
조금은 긴장 났지만 여러분들 중에 제가  
선택됨으로써 배웠던 실력을 어르신들께  
꽃꽂이를 하며 어르신들과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큰행복인지 느꼈습니다.

그 계기로 성빈센트병원 자원봉사를 신청하여서  
아프신 분들 무인 수납 안내 등을 도와드리면서  
취미로 배운 기술로 인하여 사회에 공헌할수 있음에  
제 삶이 풍요로워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림책 지도사 과정을 함께 수료했던 동기들에게는  
 배움을 묵히지 말고 봉사를 해보라고 권유하여  
 요양원과 연계 해주기도 했습니다.

봉사하는 기쁨을 알기에 수원시 마스크자원봉사자  
 모집 공고를 보고, 신청하여 마스크 만들기에 동참했음은 코로나19 모두가 힘들 때 저는 어느 한켠에서  
 작게나마 힘을 보탤수 있음에 기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20년 12월 8일 수원시에서 수여하는 자원봉사자 개인부분을 수상했습니다.  
 취미로 시작한 학습의 결과가 생각지도 않은 상이  
 주어짐에 배우고 익히고 봉사하며 사랑으로 돌려줌에  
 결과는 자신의 삶이 윤택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 내 인생의 전환점

최혜영 ●●●

저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두 아이를 키우는 전업맘입니다. 아이를 어지러운 사회 속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키우는데 있어서는 부모 또한 공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에 늘 항상 "배움"이라는 물음표가 저를 따라 다녔습니다.

제 자신이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유명한 베스트셀러 육아책을 독파하기도 하고 유튜브속 부모강의를 수도 없이 들락날락거리며 교육트렌드에 뒤쳐 질까봐 애써 쫓아가기 위해 바쁜 나날들을 보내왔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과 교육의 질을 올릴지에만 전전공공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중에 평소 책에 관심이 많으신 선생님께서 수원시 평생학습 책쓰기 코칭 지도사과정을 소개해주셔서 아이들 글쓰기에 도움이 되고자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시작은 아이들을 위한 것이었지만 하루 이틀.. 점점 강의를 들으며 제 자신이 변화되는 기분이었습니다. 평소 가족이나 주변 지인들과의 소통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면 어떻게 해결해 나아갈지 고민이 될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글 쓰기 과정을 깊이 배우면서 이러한 나의 주변의 것들을 여러각도에서 바라보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가치를 찾아내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감사함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좀더 많은 지식을 앞서 주기 보다는 내면을 좀더 살펴주고 귀기울여 주며 소통을 잘 하는 것이 내면이 탄탄하고 정서가 안정된 아이로 올바르게 커갈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인다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 할까요. 이렇게 저는 글을 쓰며 새로운 배움 속에서 즐거워하고 감사함을 배워 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서툴고 미숙한 글이지만 자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더 나아가 저의 배움이 남들에게도 도움이 될수 있도록 선한 영양력을 가진 사람이 되도록 지금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더 배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고자 합니다.

# 배움, 이음, 나눔

박경희 ●●●

어릴 때 나는 공부를 못했다. 지금 생각하면 꼬마철학자의 소양을 조금 가졌던 거 일 수도 있겠다 싶다. 공부를 하는 이유를 다시말하면 배움의 이유를 알고자 했고(13세쯤으로 기억된다) 알 수가 없었다.

그로 인해 나의 성장엔진은 더이상 나아갈 수가 없었다. 그 당시 마음을 얘기할 수 있는 가족중한 명에게서 들은 답은 "너한테 좋기 때문이지"였는데 내가 원한 답은 그런 종류가 아니었다. 보다 더 근원적인 부분에 나의 관심은 쫓혀 있었고 그 답을 얻기전에 나는 진정 마음에서 하고자 하는 동기없이 그저 해야한다고 하니 마지못해 하는 공부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오랜 세월이 흘러(지천명의 나이대에) 그에 대한 답을 찾고 나서 나의 삶은 아니 나의 내면에는 가히 혁명적이라고 할 변화가 일어났다. 몰랐던 걸 알아갈 때의 희열로 지루하게 수동적으로 살아가던 삶이 즐거워지고 적극적으로 되어가기 시작한 것이다. 말하자면 그동안 내 뇌세포들은 배움이라는 영양분이 부족해 비쩍 메말라 있다가 단비를 맞은 격이라 할까. 아무튼 오랜기간 내안에 잠들어 있던 세포들을 깨우는 작업의 일환으로, 때맞춰 네트워크기술의 발달로 쉽게, 늘 무언가를 조금씩이라도 읽고 강의를 듣고 하는 배움의 삶이 즐겁게 이어지다보니 이제는 배움이 일상이 되어버린 듯하다(오늘 날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이는 내 개인을 넘어 가정, 사회, 크게 본다면 인류에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믿는다. 진정한 배움은 시야를 넓혀주어 개인적보다는 전체를 보게 하고, 우리삶의 작거나 큰 문제들과 그 해결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비록 그것이 최상일지 아닐지는 불투명할지라도) 해결책을 모색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어느 책에서 보니 학습하는 순간 우리의 뇌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수많은 신경세포의 말단 부분이 이어짐이 활발하고 견고해진다고 한다. 마치 운동을 하면 근육이 튼튼해지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 때문인지 전에는 무언가를 떠올리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던 것이 즐거운 배움이 이어지고 부터는 대체로 훨씬 빨라졌다.

우리는 배움을 통해 나라는 존재에 대해 더 알게 되고 보다 자아실현에 가까워지게 된다. 그럼 그러한 배움을 가지고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세상과의 연결이 있어야 한다.(오늘날 다양한 매체들을 통한 지식 공유 등이 그를 대변하듯이) 그로인해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즐겁게 자신의 삶을 꾸며가는 데 동참하는 사람들의 수를 늘리는 것이 배운자로서의 올바른 책무가 아닐까 생각해본다.

# 나를 만나는 시간

박정숙 ●●●

부슬부슬 가을비가 내리는 아침입니다.

따뜻한 커피 한잔을 마시는 시간이 참으로 고맙습니다.

다들 길어진 코로나로 지치고 힘든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저도 4단계가 되고 복지관이 휴관하면서 4개월째 장애인녀랑 집에서 보내고 있어요.

처음에는 힘든 줄 모르고 잘 지냈습니다.

복지관에 보내려고 아침 일찍 깨우지도, 아들 비위를 맞추지도 않아도 되니까 어떤면에서는 게으른 생활이 좀 편안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가슴속에 답답한 마음으로 꽂차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에게 이 감정을 쏟아낼 수도 없고, 힘들게 일하고 퇴근하는 남편을 붙들고 매일 하소연 할수도 없는 일...

그럴때 조용히 펜으로 써 내려갑니다.

현재의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글로 토해냅니다.

그리고 나면 고요해지는 내 마음을 마주합니다.

누구에게도 화가 미치지않고 조용하게 감정을 잘 다스린 나를 위로하면서 아들에게 환한 미소를 전합니다.

제가 이렇게 글로 마음을 다스리게 해준 고마운 책 한권이 있습니다.

14년전 초등학생이던 아들은 특수학급이 있는 일반학교를 다녔습니다.

단순한 자기의 필요만을 요구하는 것 외에 의사소통이 전혀 안되는 아들은 학교생활의 어려움을 "자해"로 표현했습니다.

자기의 얼굴을 때리고 손목을 물고 온 몸으로 말하는 아들을 붙들고 날마다 울었습니다. 말이 안 통하니 얼마나 힘들까? 답답할까? 제 마음도 지치고 우울한 날들의 연속이던 어느 날 우연히 들렸던 서점에서 '마시멜로 두번째 이야기'를 만났습니다.

'마음속으로만 기억하는 것보다 말을 하는 것의 힘이 더 크고, 말로 하는 것보다 글로 쓰는 것의 힘이 더 강해요.

기록은 행동까지도 지배해요.'

"기록은 당신의 행동을 지배한다"

기록함으로 내 행동을 다스릴 수 있다라는 글을 믿고 날마다 그날의 아이행동뿐 아니라 소소하게 마주하는 일상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날은 짧게 어느날은 길게 나를 만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6개월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난 뒤 아들이 변한것은 없는데 그것을 대하는 내 마음이 예전보다 훨씬 덜 불안해 하는것을 알수있었어요.

일상을 기록하면서 저는 진짜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나를 사랑하면서 아들의 장애도 부끄러움이 아니라 당당하게 받아들일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들이랑 마주보며 웃을수 있는 시간은 행복합니다.

아들의 삶도 제 삶도 소중하게 지켜줄 수 있었던 힘은

제 삶을 기록하고 나서 부터입니다.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전개될지 알수없지만 지금 여기에서 주어진 오늘을 감사해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준 책

'마시멜로 두번째 이야기'

고맙고 감사합니다.

# ‘아픔이 길이 되는 곳에 우리는 서 있을 것이다.’ - 2018 편파적 콘서트 ‘감수성 올림’ 을 마치고.

신연정 ●●●

‘밍밍’ ‘봄봄’ ‘붕어빵’ ‘단지’ ‘다름’은 수원시평생학습관 나침반 단원이다. 평균 나이 사십 중반 여성, 엄마, 시민이다. 나침반과 인연을 맺은 시기와 이유가 다르듯 성격도 제각각이다. 한번 붙잡은 자료는 미세먼지 하나 없이 탈탈 터는 자료왕 밍밍, ‘좀 엉뚱한 애길지 모르겠지만’으로 말문을 열어 생각지 못한 곳으로 우리의 주제를 데려가는 봄봄, 돌격대장 일사천리 붕어빵, 아름다움과 고상함을 담당하는 단지, 다르고 반듯하길 원하지만 뻘하고 구겨지는 경우도 많은 다름 그리고 단체 사진 촬영의 대가 단사 김 선생님까지, 6명은 ‘감수성 올림’을 기획하며 한여름 폭염과 가을의 스산함, 겨울의 찬기를 함께했다.

기획 회의 첫날 밍밍이 여느 날과 같이 ‘ 쌤들이 책 읽어 봤어요?’ 하며 운을 떼다. ‘너무 좋아요 너무’. ‘너무’가 무려 연거푸 두 번이다. 십 점 만점에 십 점이란 얘기다. 고려대 보건과학대학 김승섭 교수의 ‘아픔이 길이 되려면’을 우리는 그렇게 만났다. 하반기 나침반 기획은 ‘우울’에 대해 다뤄보기로 했다. 쌍용 자동차 해고 노동자, 세월호 유가족, 성 소수자, 가슴기 살균제 사망 사건까지 국가와 사회 환경 잘못으로 피해자가 된 사람들 이야기를 사회역학자 입장에서 풀어낸 책은 ‘감수성 올림’ 기획 씨앗이 됐다. 우울한 세상이 나아지려면 필요한 게 뭘까?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것으로 여기는 ‘감수성’ 아닐까?

김승섭 교수님이 연구와 집필로 ‘감수성 올림’에 함께 할 수 없다는 소식을 전했다. 위기다. ‘아프다고 말하기, 괜찮냐고 말걸기’ 부재에 맞는 다른 강연자를 찾기 위해 책과 뉴스, 영상과 다른 기관의 강연 내용을 샅샅이 샅샅이 살폈다. 현장에 가서 강연자를 직접 만나보고 섭외를 하기도 한다. 정동 프란체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김승섭 교수님 쌍용 자동차 해고 노동자 관련 연구결과 발표회와 느티나무 도서관이 마련한 장혜영 감독과의 만남, 수원한국지역도서전 행사 중 행궁동 카페에서 열린 김동산 출장 작곡가 공연장에 갔다. ‘감수성 올림’과 연결하기 위해 무던히 애쓴 여름이 그렇게 지나갔다.

포스터와 소책자 디자인을 맡은 단호리 작가는 수원시정연구원 공모전을 통해 만났다. 나침반 단원 공동으로 출품한 작품이 최우수상을, 단호리 작가는 우수상을 받았다. 수원 화성 주변과 일월 저수지, 매교동 등 수원의 오래된 동네 풍경을 담담하게 그린 그림이 인상 깊었다. 강연 기간 작품 전시도 함께 했다. 우연이 인연이 되는 신묘한 경험이었다. 단지는 학습관 누구나 학교 쉼터 강사다. 강연자 책 전시에 필요한 쉼터 소품부터 테이블 보, 모빌과 질문 보드 디자인까지 ‘예쁨’과 관련된 모든 일을 척척 해냈다.

10월 10일 드디어 대강당에서 첫 강연이 열렸다. 사회를 맡은 봄봄은 처음 시작이라 부담이 컸을 텐데, 따뜻하고 진지하게 분위기를 이끌었다. 마이크를 들고 큰 대강당을 동분서주한 붕어빵의 열정도 잊을 수 없다. 촬영으로 바빴던 멍멍, 강연 안내를 맡아 대강당 안팎으로 신경 썼던 단지와 기록 담당 다름, 모든 곳에 있었던 단사 선생. 은유 작가와 단체 사진을 찍은 후 1강의 막이 내리자, 수원문화재단과 협약 맺으며 단장 붕어빵이 도장을 찍던 날부터 막막했던 첫 기획 회의와 포스터를 붙이겠다며 미세먼지 만발한 날 행궁동 일대를 확보한 일까지 장면 장면이 눈앞에 느린 화면으로 떠올랐다 사라졌다.

먼저 예상한 강연 내용과 실제 강연이 맞지 않아 실망하기도 했고, 강연자의 건강 악화로 급히 강연 구성을 바꾸기도 했으며, 추워진 날씨에 청중이 줄어 고민스럽기도 했다. 다음엔 9회 말고 딱 6회만 하자며 서로 위로했다. 지치지 말자 여러 번 손잡고 다독였다. 감수성 올리다 미모와 건강을 잃었다며 농담 반 진담 반 얘기도 했다. 모 나침반 단원의 어린아이들은 강연이 열린 밤마다 라면으로 끼니를 대신했다는 소문도 들리고, 모 나침반 단원의 배우자는 오늘까지 만이라며 집으로 돌아오라 호소했다 한다.

마라톤을 완주한 사람은 종종 ‘러너스 블루’ 이른바 ‘주자 우울증’을 겪는다고 한다. 81년 뉴욕마라톤 우승자인 ‘알베르토 살라자르’는 대회 우승 후 여러 날 동안 우울했으며 다시 달리러 나갔을 때 울고 싶었다고 한다. 세계적인 작가이자 마라톤 마니아인 ‘무라카미 하루키’도 마라톤 우울증을 앓았다고 고백한다.

“문득 떠오른 것은 ‘러너스 블루’라고나 할 만한 것이, 옅은 필름처럼 나를 둘러싸고 있었다. 울트라 마라톤을 달리고 난 뒤에 나는 달린다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 이전처럼 자연스런 열의를 가질 수 없게

되어버린 듯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육체적인 피로를 여간해서 풀기 어려웠다는 것도 있지만, 그것만이 아니었다. '달리고 싶다'라는 의욕이 내 안에서 이전처럼 명확하게 보이지 않게 된 것이다.”

— 무라카미 하루키 작/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中

‘감수성 올림’ 9회 강연이 모두 끝나고 나는 홀가분하면서 우울한 마음도 들었다. 하루키가 말한 ‘러너스 블루’와 비슷한 감정이다. 대입을 치른 딸과 함께 강원도 상원사에 다녀온 멍멍, 편찮은 아버지 곁을 지키느라 애쓰는 붕어빵, 아이의 고등학교 입학 설명회를 강연 준비로 하마터면 놓칠 뻔한 봄봄, 본업인 쿼트 할 시간이 없어 애태운 단지, 돌아서면 써야 할 글이 쌓여 힘들었던 다름, 챙겨야 할 일상과 나의 욕구와 ‘감수성 올림’은 불화와 화해를 거듭하며 끝났다. 우리가 언제 다시 달릴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지만, 달려갈 방향은 변함없다. 보이지 않는, 말할 수 없는, 들리지 않는 목소리를 향한다. 아픔이 길이 되는 곳에 우리는 서 있을 것이다.

## 삶을 더욱 풍요롭게 가꿔주는 수원시평생학습관!

정미영 ●●●

학습관과의 인연은 3년 전쯤 '독서토론리더' 과정을 수강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친구가 갑자기 백수가 되어서 자주 만나게 되었는데, 기왕이면 만날 때마다 뭐라도 함께 배워보자는 단순한 의도였죠. 몇 주간의 수업이 끝난 후, 수강생들끼리 자발적으로 독서토론 모임을 꾸리고 매주 1회씩 학습관에 출석 도장을 찍다보니, 학습관에서 공부모임, 명사 특강 등 매우 다양한 활동이 열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학습관에 다니기 전에는 집에서 혼자 유튜브로 다양한 명사특강을 듣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지식이 흔하게 널린 세상에 유튜브가 대학을 대신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 분야를 꾸준히 파지는 못하고, 그저 맛보기 체험에 불과하게 되는 것 같아 답답함도 쌓여갔습니다. 그런 아쉬운 마음이 들던 차에 김재민 선생님이 '유투공'이라는 프로그램을 소개하셨을 때, 눈이 번쩍 뜨여서 덩석 함께 하게 되었지요.

하지만 처음에는 집에서 혼자 영상을 보는 것과 얼마나 큰 차이가 날까 하는 의문도 있었습니다. 제가 해당분야의 석박사도 아닌데, 괜히 진행을 하다가 망신이라도 당하면 어찌지 하는 부담도 컸지요. 수강 신청 인원이 올라갈 때마다 배가 슬슬 아파질 정도로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분야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한데 모여서 공부하는 재미와 효과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영상을 함께 보고 난 후 각자의 경험을 연관 지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자체가 즐겁기도 했지만, 지식 면에서도 혼자 공부할 때보다 훨씬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어 기뻐했습니다. 새로운 지식은 나의 삶과 연관 지어 생각하는 활동이 누적되다보니, 서서히 내 삶에 적용도 되고 통찰력도 조금씩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가장 감사한 점은 저의 편견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내가 가진 생각이 맞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살아왔다면, 유튜브를 하면서 다양한 생각을 가진 분들과의 만남을 통해 조금 더 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도 지인들과의 대화를 즐기며 살아왔지만, 생각해보니 제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곁에 남겨 편견이 더욱 깊어지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학습관에서의 경험이 삶의 활력소 일 뿐 아니라,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준다는 확신이 듭니다. 앞으로도 시간을 쪼개 학습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만남의 장을 마련해주신 수원시평생학습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 16살의 변화, 즐겁게 최선을 다 하는 인생

이 부 영 ●●●

글을 쓰고 콘테스트에 보내는 것이 처음이어서 막막하고 무섭고? 떨렸지만 용기를 내 써봅니다. 글을 쓰게 된 계기는 멘탈 캠프에서 학습활동을 하며 경험하고 배웠던 그리고 실천했던 저의 이야기를 쓰기 위해서 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가서 저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어요?

제가 평생학습관을 처음 접하기 전에 공부 멘탈 캠프에서 학습했습니다. 멘탈 캠프에서 저는 저의 상태 (몸 컨디션, 공부의욕 등)을 체크하고 나만의 만트라 만들기, 공부 멘탈 십계명, 미래에 대한 정확한 계획 세우기 등 여러 가지 학습활동을 했습니다. 저는 `학습활동`으로 끝내지 않고 캠프에서 배운 것을 실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공부멘탈 캠프를 총 3번 수강했습니다(겨울 캠프:2번, 여름 캠프:1번). 첫 번째 수업을 들을 때는 배우려는 의욕이 많았고 모든 다 이해하는 것 같고, 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집에 가서는 `해야지`라는 생각만 하고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수업을 들을 때는 좀 더 솔직하고 정성스럽게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집에서 거울을 보고 칭찬의 말을 건네기도 하고, 하루에 1시간씩 의자에 엉덩이를 붙이면 (학원, 학교 제외) 초콜릿 머핀(제일 좋아하는 것!!!)을 먹는 등 하나둘 계획하고 실천해 나갔습니다. 세 번째 수업을 들을 때는 수업내용을 거의 다 암기했고 수업에서 배운 것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며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아직 수업에서 배운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며 칭찬하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위에 글에서 언급한 미래에 대한 정확한 계획 세우기의 첫 번째 작품은 뭐...(자세한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그저 그렇고 딱 전형적인 부모님들이 좋아할 만한 인생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세 번째 계획을 세워보니 20대, 30대 더 나아가 먼 미래에 대한 계획의 틀이 점점 선명해지고 치밀해졌습니다. 또한 제가 추구하던 삶에 가까워지더군요.

이 인생 계획 세우기는 저의 16년 인생에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 큰 깨달음은 바로 제가 평생 청소년이 아니기 때문에 4년 뒤 제가 성인이 되었을 때는 엄마와 아빠의 아래에서 항상 도움을 받고 살 수 없다는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이 깨달음을 얻고 문득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럼 난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 이 질문에 저는 곰곰이 생각하다 저 자신에게 답했습니다.

'학생이란 신분에서 벗어나서 모든 일, 심지어 사소한 하나하나의 것까지 즐겁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되지 않을까?' 어디까지나 저의 생각이지만 즐겁고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최선을 다했고 즐겼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멘탈 캠프를 통해 깨달음을 얻고 즐겁고 최선을 다해서 살기로 다짐했고 지금도 변함없이 즐겁고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불꽃혼 나혜석으로 다시 태어나다.

이 순옥 ●●●

2016년 3월 31일 나혜석 소설을 집필하다가 과로로 쓰러져 4년여 시간을 병원에 입원하여 재활치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른쪽 마비로 아직 불편한 몸이지만 죽을 만큼 커다란 절망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가졌습니다.

지난 봄에는 병원에서 왼손가락으로 집필한 "불꽃혼 나혜석" 시집을 출간하였습니다. 10월 20일까지 가을 전시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전시회가 끝나면 중단된 소설 "불꽃혼 나혜석(소설 나는 나혜석이다)"을 오른손이 불편한 관계로 녹음을 통하여 완성한 후 세계적인 영화로 만들 계획입니다.

일제치하에서 독립운동가이자 화가시고 시인, 페미니스트인 나혜석 인물은 귀중한 우리의 자산입니다. 혼신을 다해 계속 작업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인생콘테스트

최근자 ●●●

학습관의 <뭐라도학교> '인생수업'을 듣고 저는 많은 것을 느끼고 나중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시니어들에게 공감대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인생2막'을 살아야 하는 시니어 장년님들 젊은 나이는 아니지만 언제나 웃음꽃 피우며 살아가야하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가 원하는 최고의 선물은 건강이 아닐까요? 저는 베이비붐세대입니다. 우리에게 처한 인생 계절에 맞게 준비해 나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닥칠 인생의 겨울 앞에서 당황하지 않기 위해 평생을 배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강좌에서 배운 교훈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입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길에서 배우고, 배운 것을 실천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4부

---

## 심사위원 참여 후기





## ‘평생학습 인생토크’에서 배우다

심사위원 손 선 희 ●●●

올해 초 ‘평생학습’이라는 단어에 꽂혀 지인들에게 카톡으로 물었다. “당신에게 평생학습은 무엇입니까? 왜?”라는 질문에 짧은 답을 써 달라고 했다. 다양한 답이 돌아왔다. ‘새로운 시작이다. 공기청정기다. 새 출발이다. 나를 성장시키는 원동력이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배우는 삶의 지혜다. 끊임없는 자기 계발을 위한 필수 항목이다. 마셔도 마셔도 해소되지 않는 갈증이다. 내 인생의 교정기이다’라는 답을 받았다.

나에게 평생학습이란 무엇일까? 삶에 대한 ‘열정’이다. 새로운 무엇인가를 접하고 배우고 익히는 과정은 많은 에너지를 요구한다. 지치지 않는 열정이 있어야 가능하다. 잠시 쉬어갈 수는 있어도 멈추지는 않아야 한다. 나에게 그런 과정이 이루어지는 평생학습 동지 중 한 곳이 ‘수원시글로벌평생학습관’이다.

‘평생학습’이라는 말은 이제 현대인의 삶에서 필수 단어가 되었다. 수원시글로벌평생학습관(이하 학습관)이 개관한 지 10년이 되었다. 학습관에서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다. 그중의 하나가 ‘평생학습 인생토크’이다. 학습관에서 또는 기타 여러 기관에서 평생학습을 통해 변한 삶의 이야기를 글로 써서 응모하는 것이다.

2018년부터 시작된 학습관과의 인연으로 ‘평생학습 인생토크’ 심사위원단이 되었다. 응모한 시민의 글을 꼼꼼히 읽을 수 있는 시간을 누렸다. 원고를 메일로 받아 토요일 하루 꼬박 읽고 읽었다. 감동과 공감의 시간이었다. ‘유투공’이라는 시간을 통해 어느 명사의 이야기보다 내 이웃의 진솔한 이야기가 더 많은 울림을 준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의 이야기를 말이 아니라 글로 읽으니 그 전해짐이 배가 되었다.

말은 지나가면 머릿속에만 남고, 희석된다. 글은 행간을 읽고 또 읽으면서 그 의미를 곱씹을 수 있다. 글쓴이를 알지 못하지만 글 속의 상황을 한 편의 영화로 만들면서 울고 웃었다. 가족에게 마음을 울리는 구절을 소리 내어 읽어 주기도 했다. ‘평생학습 인생토크’가 우리 집 식탁에서 여러 차례 애깃거리가 되었다. “이런 분이 계셔. 나이도 배우의 정도도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네. 정말 대단한 분들이 많으시네. 이 글 한 번 읽어 볼래요?”

나름 열정 가득한 배우의 삶을 산다고 생각했는데, ‘평생학습 인생토크’ 주인공들의 이야기에 고개가 숙여졌다. 진솔한 삶을 사는 그들의 가치관과 삶의 철학에 박수를 보낸다. 그들의 이야기에서 울고 웃을 수 있어서 2021년 나의 가을이 풍요로웠다. 감사한 마음이 한가득하다. 소중한하고 아름다운 시민의 ‘평생학습 인생토크’가 책으로 발간되어 더없이 반갑다. 이 책을 읽는 분들의 시간이 저의 지난 가을처럼 풍요롭기 바란다.

## Viva La Vida (아름다운 인생이여 만세!)

심사위원 김은영 ●●●

수원시글로벌평생학습관 <평생학습 인생토크>의 심사를 맡으며 32명의 인생이야기를 메일로 받았다. 6,70대부터 10대 소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에 가지각색의 이야기가 옴니버스 영화처럼 엮어져 있었다.

한 편 한 편 새로운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열어볼 때마다 '이런 인생도 있구나'를 알 수 있어서 흥미로웠다. 게다가 글 뿐만 아니라 대강당에서 육성으로 평생을 교육자의 길을 걸어오시고 퇴임 후 사회봉사를 꾸준히 하고 계신 선생님의 이야기, 병마와 싸우면서도 사회에 봉사하고 계신 학습멘토링 선생님의 이야기, 장애인을 대상으로 경제교육을 하고 계신 선생님의 이야기들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어 감동은 더욱 배가 되었다.

글로 읽을 때도 '멋진 인생이다!'라는 생각을 하였지만, 실제로 모습을 뵈고 이야기를 들으니 존경의 박수가 절로 나왔다. 이번 인생토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이 분들의 방송을 보고 우리에게 평생교육이 왜 필요한지 그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하였을 것이다. 그래서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분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심사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지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지 볼 수 있었다. 인생토크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인생에 만세!'라는 말씀과 함께 큰 박수를 전하고 싶다.

# 나의 삶을 돌아보게 만든 평생학습 인생토크

심사위원 이진희 ●●●

평생학습관 10주년과 수원시 평생학습 축제를 맞아 평생학습에 관한 시민들의 경험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이 되었다. 나에게 너무도 감사하게 시민들의 이야기를 먼저 읽어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많은 시민들께서 본인의 인생에 있어 평생학습에 대한 즐겁거나 행복했던 혹은 힘들었던 때의 경험을 나누어 주셨다. 시민들께서 나누어주신 경험은 감동적이었다. “남아선호사상” 속에서 못 배운 아쉬움을 세월이 지난 후에야 해소할수 있었던 이야기, 가정을 지키기 위해 어려움 속에서 공부를 추가로 할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많은 사람들과 즐겁게 보내기 위하여 활동했던 이야기, 장애친구들과 함께하는 평생학습에 대한 이야기 등 많은 이야기들을 공유 받을 수 있었다.

나 역시 평생학습을 실천하고 있지만 아직은 애송이에 불과 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종류의 감동들이 담겨 있었다. 아쉽지만 많은 이야기들 중 5개의 이야기가 최종 LIVE방송에 직접 이야기를 들려주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역시 글로 공유되는 이야기보다 직접 들려주는 이야기에서 전해오는 또 다른 감동이 있다는 것을 다시금 느꼈다.

학교 공부를 제외한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배우는 모든 학습을 평생학습이라고 정의한다. 갑자기 나의 활동을 뒤 돌아보게 되었다. 나 역시 평생학습을 실천하고, 확산하는 활동에 참여하고 있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분들이 우리의 활동이 평생학습인 것을 알고 계실까? 또는 평생학습활동을 하시면서 보람 또는 뿌듯함을 느끼고 계실까? 라는 생각이 든다.

시민들의 평생학습에 대한 경험을 들으며 더 많은 분들이 평생학습을 경험하고 되돌아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 미래를 그려나가는 커다란 울림

심사위원 박 미 숙 ●●●

우연한 기회에 인생토크 콘테스트 심사위원으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에 심사위원 제안을 받았을 때 걱정이 앞섰습니다.

과연 내가 다른 사람의 인생을 심사할 자격이 되는 것일까? 라는 의문으로 고민이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다른사람들은 어떤 일상을 보내고 있는지 강한 궁금증도  
들었기에 감히 수락하게 되었습니다.

공모받은 글을 읽으며 놀라기도 하고 훌쩍이기도 하고 혼자 히죽거리며 웃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들을 경험하고 감동도 받았습니다.

모두들 후반부의 인생을 다양한 방식으로 성장시키고 있음에 많은 놀라움과 함께  
저를 돌아보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살아가야할 미래를 그려나가는데 커다란 울림을 준 선배님들의 경험들로  
뭐든 할수 있다는 자신감과 도전할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된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습 인생토크 콘테스트 스토리북  
“꿈이 있기 때문에 배우는 겁니다”

---

펴낸곳 | 수원시글로벌평생학습관

펴낸날 | 2021년 12월 31일

펴낸이 | 조영호

(16232)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월드컵로 381번길 2(우만동)

Tel | 031-248-9700

Fax | 031-248-9902

Homepage | [learning.suwon.go.kr](http://learning.suwon.go.kr)

Facebook | @suwonedu

---